

목포 삼학도 앞바다에 유람선이 떴다



목포 삼학도 앞바다에 대형 유람선이 떴다. 목포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인 ㈜한국호남해운개발은 12일 오후 2시 삼학도 옛 해경부두에서 유람선 2척의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대형선인 삼학도크루즈는 2018

년에 건조된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969톤급의 최신형 유람선으로 승선정원은 578명이며, 공연장과 연회장, 야외행사장,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소형선 유람선크루즈는 196톤에 승선정원 189명이다. 유람선은 주간 2회, 야간 1회 운항하며, 금-토-일요일에는 야경볼

구)해경부두서 취항식 갖고 본격 운항 시작

국내 가장 규모 큰 969톤급 최신형 유람선

꽃투어를 기본으로 노을투어, 해돋이투어 등 프로그램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주간 운항코스는 삼학도-해상케이블카타워-인어동상-목포대교-장좌도-달리도-삼호현대조선-신항부두-세월호거점장-고하도용머리-학섬-평화광장-갯바위-삼학도이며,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야간에는 삼학도-해상케이블카타워-목포대교-갯바위-평화광장-바다분수를 돌아오는 코스로 소요시간은 1시간이다.

요금은 대형선 기준 주간 대인 20,000원(목포시민 15,000원), 13

세 미만 소인은 12,000원이다. 야간에는 대인 33,000원(목포시민 25,000원), 소인 20,000원이다.

목포시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자로 유치한 관광유람선은 목포의 새로운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사 측에서도 유람선 운영관련 고용인원 총 30명 중 5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편, 이 달부터 운영을 시작한 공공행버스 '낭만버스' 22편을 이용하면 항구포차와 유람선,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광군, 대마 전기자동차산업 분양 잇따라

건강음료 전문생산 기업 대양식품(주)와 투자협약 체결

영광군은 11일 대양식품(대표 김옥주)과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코로나19의 여파를 이겨내고 지난달 ㈜코리아하이테크, ㈜디에스이노베이션에 이어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3,305.8㎡(약 1,000평) 부지에 54억원을 투자하는 대양식품(주)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대양식품(주)는 감식초 발효 식품, 석류 등 건강음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며, 넓은 판매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아 영광군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대양식품(주) 김옥주 대표의 열정이 영광군에 신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아 기대되며 연내 공장이 가동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운영이 힘든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기술사 입차보증금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금 등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집행에 힘쓰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안좌~장산~신의' 야간 뱃길 열려

남부권역 여객선 야간운항

신안군은 지난 12일부터 안좌 북호에서 장산 북강을 경유하여 신의면 상태동리에 이르는 여객선

야간운항을 개시했다.

안좌~신의간 야간운항 여객선은 1일 2회 왕복 운항으로 오후 6시 30분과 9시에 안좌 북호항을 출발하여 신의면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여객선 야간운항은 민선 7기 박우량 군수 취임 이후 목포~도초, 압태 남강~비금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야간 뱃길로 그동안 열악한 해상교통 여건과 주간으로만 한정된 여객선 운항은 이

동권역이라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층 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정주여건을 보다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상교통의 복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여행 인증하고 농특산물 받자"

무안군, 10월까지 온라인 여행후기 이벤트 진행

무안군은 6월부터 10월까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행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지역 관광업계가 위축된 가운데 개별관광 활성화와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여름시즌부터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안군 농특산물을 증정하는 온라인 여행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무안을 찾은 관광객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본인의 SNS계정에 무안여행 후기 게시물과 #무안여행, #무안여행후기, #무안여행후기이벤트 등과 같은 이벤트

참여 관련 해시태그를 남기고 해당 게시물을 무안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muam.go.kr/>) 여행후기 게시판에 게시물의 링크를 올리면, 자체 심사를 통해 매월 20건의 우수 게시물을 선정해 농특산물과 기념품을 택배로 보내준다.

군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완전히 진정국면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피로감을 느끼는 개별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무안의 수려한 자연환경, 관광지, 농특산물 등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1004숲을 조성하다

주민들이 가꾼 경관수로 압해도 1004숲 1·2호 조성



신안군은 11월 1004숲 1호 2호 조성을 기념하는 선포식을 압

해읍 신용마을에서 개최하였다. 1004숲이란 주민들이 가꾼 경

관수를 활용하여 만든 소규모 마을숲으로, 이번 압해도 "1004숲 1호, 2호"는 10여 년 전 마을 주민이 가시나무 800여 주를 심었던 것을 신안군에서 수목정비와 산책로를 개설하여 마을쉼터로 만들었다.

또한 1004숲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마을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안군 직접시책인 사계절 꽃피는 1004점 조성사업의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숲 조성사업으로 경관수를 키운 주민들은 소득을 창출하고 마을 주민들은 내 집 앞의 작은 공원을 이용하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1004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6월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함평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3억 7천400백만 원(13,625대)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이달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등 기계·장비 소유자다.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연납 대상자는 제외다.

또한 1·3월 연납분을 제외한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등록일 이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감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